

증시 널뛰자 싹바꾼 투자전략, 경기관련·배당주 부각

코스피200 지수 상승 확신 선회
전기보다 경기소비재 집중 매수
배당 안전장치 있는 펀드도 인기

글로벌 증시를 호황으로 이끈 '골디락스(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상적인 경제 상황)' 시대가 흔들리고 있다. 증시 변동성이 커진 데다 룰러코스터장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주식시장 투자자들의 투자성향도 바뀌고 있다. 기관투자자들은 경기소비재 종목 매수에 나서고 있고, 개인은 안정적인 고배당 펀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설 명절 이전 증시 변동성 회복' 이란 입장에서 다소 물러나는 분위기다. 이들은 3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열릴 때쯤 글로벌 증시가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최근 증시 폭락장을 이끈 '미국 임금상승'이 실제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지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9일까지 기관투자자는 코스피200지를 추종해 수익을 내는 KODEX 200 상장지수펀드(ETF)를 가장 많이 순매수(1438억원)했지만 지수 하락장에 수익을 내는 KODEX 인버스 역시 세 번째로 많은 순매수(839억원) 규모를 보였다. 해당 기간 순매수 1, 2위 종목은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3·4위 종목은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ETF가 이름을 올렸다. 지수의 방향성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단 인버스 상품을 통해 수익률 방어에 나서는 모양새다.

〈기관투자가 순매수 상위 종목〉

종목	순매수(억원)
KODEX200	1438
TIGER 코스닥 150	1001
KODEX 인버스	839
KODEX 200 선물 인버스	616
롯데케미칼	592
현대건설	590
현대중공업	508
KODEX MSCI Korea	484
현대차	445
기아차	355

지난해 KODEX200(2조755억원), TIGER200(1조2127억원)을 대거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에 강한 확신을 보였던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 기관투자가 '저평가 종목 투자'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변화는 '지수'뿐만 아니라 '섹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했던 전기 전자 업종은 팔고, 그간 저평가된 경기 소비재를 주도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2월 들어 기관은 상위 4개 지수를 제외

〈기관〉

하고 롯데케미칼(592억원), 현대건설(590억원), 현대중공업(508억원), 현대차(445억원) 등을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렸다. 이들 종목은 현대중공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가수익비율(PER)이 7~8배에 불과한 '저평가' 종목이다.

반면 가장 가파른 매도세를 기록한 상위 3개 종목은 삼성전자(6678억원), 셀트리온(3433억원), 삼성SDI(1008억원) 등 지난해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하고, PER이 16~201배에 달하는 등 '고평가' 된 종목 위주로 이뤄졌다.

김윤서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주가 조정 이후 주도주는 산업재, 금융, 경기 소비재 섹터로 변했다"며 "이번 조정 이후 추세 상승 반전 국면에서 인플레이션 관련 섹터가 주도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산업재, 금융, 경기소비재는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수혜 섹터이자 저멀티플(경기 민감업종) 주식이기 때문이다.

저평가된 종목들은 하락장 속에서 견조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 개인투자가 '안전자산으로 자금 이동'

한편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심리는 배당과 같이 안전장치가 있는 펀드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배당주 펀드는 포트폴리오에 담긴 종목 주가가 떨어지면 시가로 환산한 배당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견조하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 적합한 투자처라는 설명이다. 또 주주친화정책이 주목받음에 따라 기업의 배당 성향이 증가하는 것도 호재다.

실제 이달 들어 국내 주식형펀드 전체 순자산이 3조2000억원 감소한 가운데 '신영밸류고배당 증권 자투자신탁(주식)'과 '베어링 고배당플러스증권투자신탁(주식)'의 순자산은 각각 151억원, 100억원 증가했다. 해당기간 수익률이 -5%에 가까웠다는 점에서 실제 자금 유입은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자산 전문가는 "그동안 고객들이 정보기술(IT)이나 바이오 관련 펀드를 찾았다면 증시 부침이 시작되면서 해당 자금을 배당펀드 등 안전자산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다"면서 "향후 중수익·중위험 상품 등이 주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임자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한국지엠,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벼랑 끝에'

현대·기아 등 완성차업계 상황 '비슷'
한국 철수땐 업계·지역경제 치명타

한국지엠이 국내 자동차 산업의 발목을 잡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인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결국 한국 철수설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지엠처럼 '판매 감소-비용 증가' 문제는 현대·기아차 등 다른 한국 완성차업체들도 마찬가지여서 마냥 반사이익을 기대하며 '강 건너 불구경'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 위기부른 '고비용·저효율 구조'

12일 한국지엠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이

회사의 누적 적자는 4조여원에 달한다. 지난해 역시 2016년과 비슷한 약 6000억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적자에도 한국지엠의 1인당 평균 임금은 2013년 7300만원에서 2016년 8700만원으로 20% 상승했다. 2017년 1인당 평균 임금은 9000만원에 이른다. 미국GM 본사가 한국지엠에 대한 구조조정을 계속 언급하는 이유다.

임금 상승에는 통상임금 소송 결과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한국지엠의 주장이다. 2013년과 2014년에 걸친 노조와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소급분 지급 의무는 없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인정으로 이후 인건비 부담이 늘

었다는 설명이다.

저조한 판매 실적에 고정비 부담만 커지면서 공장 가동률은 뚝 떨어졌다.

◆ 한국지엠 철수하면 실업자 급증

만약 한국지엠이 철수할 경우 국내 자동차 업계와 지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2016년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국내 자동차 업체 가운데 1만 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하는 대기업은 현대차와 기아차, 그리고 한국지엠 세 곳뿐이다. 한국지엠의 고용 인력은 모두 1만6031명으로, 매출 100억원이 넘는 1081개 자동차 관련 업체 전체 직원 수(33만5745명)의 4.8%에 이른다. 여기에 한국지엠과 거래하는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 서문

/연합뉴스

협력업체(1~3차) 수도 넘기 때문에, 경영난 '도미노'가 불가피하다.

◆ '고비용 구조' 완성체업체 고민

한국지엠의 발목을 잡은 '고비용' 구조는 비단 한국지엠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 완성차업체들의 고민거리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업체 5곳의 연간 평균임금은 2016년 기준

으로 9213만원으로 2005년과 비교해 83.9% 올라 이미 일본 도요타(9104만원)와 독일 폭스바겐(8040만원) 등 주요 경쟁업체를 웃돌고 있다. 매출액 대비 임금 비중도 월등히 크다.

국내 1위 완성차업체 현대·기아차의 영업이익률이 세계 최하위권인 것도 비슷한 이유다.

/양성운 기자 ysw@

그래서,
저 박상원과 라이나생명이
튼튼한 암 보장을
선언합니다!

[라이나생명(무)플러스암보험(갱신형)]

암, 치료법이 좋아지는 만큼 대비해야 할 비용도 늘었습니다.
비급여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도 생각한다면 튼튼한 보장의
라이나플러스암보험에 지금 전화주세요!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



라이나생명

박상원 / 생명보험판매자격보유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7-4677호(2017.10.17)

☑ 암에 걸리면 실직할 수도 있잖아요?

☑ 치료비가 훨씬 비싼 암도 있다던데?

☑ 60세 넘어 암 걸리는 사람 참 많거든?



• 본 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15세부터 60세까지 기입 가능하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암 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임 • 기존보험 계약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람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 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음

24시간 무료상담신청
지금 전화 주세요
080-763-7070